

월드 아이들 뜨겁게 뭉쳤다

BTS 데뷔 11주년 맞아 세계 팬들 서울로

“방탄은 ‘러브’(LOVE)입니다. 보라해~.”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30도에 육박하는 땀방울에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이 배경 음악으로 쉬지 않고 흥겹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 선글라스, 양산, 모자 등으로 무장한 채 들뜬 표정으로 줄을 기다렸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4 페스타’(2024 FESTA) 현장이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기념일인 6월 13일을 전후해 매년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어왔다. 올해는 전날 전역한 망형 진을 제외한 여섯 멤버가 모두 군 복무 중인 만큼, 체험 부스 위주로 작년보다는 작은 규모로 개최됐다.
 오전 11시 입장 시간 훨씬 전부터 행사장 인근은 먼저 입장하려는 팬들로 북적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인근 지하철역까지 이어졌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를 과시하듯, 우리나라는 물론 일

잠실운동장 일대서 ‘페스타’ 즐겨 포토 부스 등 체험 공간 더위에도 인산인해 군 복무 멤버들 친필 편지로 마음 전해

본, 중국,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팬들은 자신의 언어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입장을 기다렸다.
 행사장 일대에는 캡슐 뽕기 기계에서 방탄소년단의 곡 가사 일부를 뽑는 ‘뽕아라 뽕아’, ‘2024 페스타’ 로고로 업사이클링(재활용) 플라스틱 파츠 만들기, 직접 그림일기를 그려 벽에 붙이는 ‘6월 13일의 아미(ARMY·방탄소년단 팬들)’ 등의 부스가 마련됐다. 또 페스타 개최를 기념해 키팅, 티셔츠, 집업 등의 MD(굿즈상품) 매대도 마련돼 팬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미국에서 온 새넌 하든(뉴욕), 니샤 몰렌(올랜드), 링거 생구일(샌프란시스코)씨는 취재진을 향해 “보라해”를 외치며 환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2014년부터 방탄소년단을 좋아한 ‘월드 팬’이라며 뿌듯해했다.
 이들은 데뷔 11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고 하자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러브”라고 답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었는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며 “그들은 전 세계 아미 모두를 하나로 묶어줬다. 멤버 개개인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다

하는 아티스트인 데다가 개인이 훌륭한 인격자여서 겸손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더 레드 블랫’ 콘서트(2014년)를 다시 봤는데, 멤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 완벽해지는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때 이른 무더위에 아예 돗자리와 의자를 챙겨와 시원한 그늘에서 소풍 분위기를 내는 팬들도 눈에 띄었다.
 행사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군 복무 등으로 행사를 직접 찾지 못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쓴 손 편지 이미지가 나와 아쉬움을 달래줬다.
 정국은 “무대를 진짜 하고 싶다. 빨리 아미들의 함성을 듣고 싶다. 또 멋진 곡을 하고 싶다”며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나. 즐기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겠죠”하고 절절한 마음을 전했다.
 지민도 “저는 여기(군대)에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과 먼저 놓고 계시라”며 “그러다 보면 한명씩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다. 얼른 다 같이 만나서 일싸내고 놀자”고 썼다.
 전날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아미 쿠니아 울리안티 씨는 작년 고국에서도 열린 멤버 슈가의 솔로 콘서트를 가본 적은



방탄소년단 팬(아미)들이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방탄소년단 데뷔일기년 축제 ‘2024 FESTA’를 즐기고 있다.

있지만 페스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2021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시 방탄소년단의 ‘블루 & 그레이’(Blue & Grey)라는 노래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 이게 방탄소년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다”며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들의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중인 멤버 뷔를 향해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올해 페스타는 이날 오후 전역한 멤버 진이 팬 1000명을 포용해주는 ‘허그’와 그가 직접 그간의 소회를 들려주는 오프라인 행사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아빠역은 처음...가능성 보여주고 싶었죠”

‘종영’ JTBC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

군 제대 후 복귀작...천우희와 호흡 만족 군대 다녀온 후로 마음의 여유 생겨 차기작, 상상하지 못한 모습 보여드릴 것

답이 컸지만, 이런 캐릭터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복귀주는 딸이 태어난 날 아이를 품 안에 처음 안으며 이 순간으로 수없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는데, 같은 날 그를 대신해 당직을 서준 소방관 선배가 화제 현장에 구조를 나갔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 없이 과거로 돌아가 사고를 막으려고 애쓰고, 딸과의 행복했던 첫 추억은 점점 불행으로 덮여지기 시작한다.
 장기용은 “복귀주와 도다해의 로맨스를 급하지 않게 표현하고 싶었다”며 “서서히 서로에게 녹아드는 모습을 그려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우희와 장기용은 어떤 조합일지 저조차도 궁금했는데, 현장에서 제 에너지를 받아주면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시너지가 폭발한 것 같다. 호흡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 함께 한 시간이 영광이라고 느껴진다”고 돌아봤다

장기용은 차갑게 밀어내기만 하던 복귀주가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로 딸 복이나(박소이)를 꼽았다.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집에서, 학교에서도 투명 인간처럼 지내던 복이나에게 도다해는 엄마처럼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는데, 장기용은 “딸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며 복귀주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복귀주와 복이나는 친한 사이가 아니라 어느 드라마 속 부녀 관계와 달랐다”며 “부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제게 너무 낯설어서, 감독님과 아주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드라마 마지막 장면으로 박소가 배우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 장면이라 그런지 몰라도 소이의 눈을 맞추니 제가 정말 아빠가 된 기분이 들었다. 소이가 딸로 보여서, 짧게나마 아빠의 마음을 간접 체험한 느낌이었다”고 되짚었다.
 모델 출신인 장기용은 2014년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고백부부’, ‘나의 아저씨’,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간 떨어지는 동거’ 등에 출연했다.
 장기용은 “실 틈 없이 촬영하면서 20대를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보낸 1년 6개월의 시간이 오히려 휴식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치열하게 살아온 덕분에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못 해본 캐릭터, 못 해본 연기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계속 제가 가진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차기작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1박 2일’ 연정훈·나인우 하차 이달중 마지막 촬영...프로그램 재 정비

배우 연정훈과 나인우가 장기간 고정 출연해온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4에서 하차한다.
 KBS ‘1박 2일’ 시즌4 제작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 “멤버 연정훈, 나인우와 이정규 PD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며 “세 사람은 이달 중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직접 마지막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정훈은 2019년 시즌4 시작부터 고정 출연해왔고, 나인우는 2022년 2월 합류해 2년 넘게 출연했다. 이 PD는 2022년부터 메인 연출을 맡았다.
 제작진은 “그간 애정을 가지고 ‘1박 2일’을 빛내준 연정훈, 나인우와 이정규 PD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재출연의 시간과 새로운 작품 준비에 나설 연정훈, 나인우와 이 PD의 다음 행보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1박 2일’ 시즌4의 메인 연출은 그간 공동 연출을 맡아온 주종현 PD가 담당하게 된다. 연정훈과 나인우의 빈자리를 채울 출연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연정훈

안재근이 행복했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초능력자 복귀주.
 축복만 같은 이 능력은 저주가 돼버린다. 돌아갈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는 과거 속에서 무수히 좌절감을 느끼고, 과거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현재 속에 살지 못하게 된다. 그는 결국 행복도, 능력도 모두 잃고 만다.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우울증 환자이자 사춘기 딸 아빠인 복귀주를 연기한 배우 장기용(32)은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딸 아빠역을 맡게 됐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그는 “군 전역 후 복귀작인 데다 처음 해보는 연기라서 부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대연건설</h3> <p>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p>	<h3>(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h3>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사,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p>	<h3>(주)대신수산유통</h3>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p>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꽃게랑 약선반찬 전집</h3>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p>	<h3>금남로 사주 카페</h3> <p>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p>	<h3>석당화랑</h3> <p>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우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면쟁이</h3> <p>동구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p>	<h3>(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h3>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p>	<h3>파크랜드 광주 세정점</h3> <p>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p>
<h3>박당화랑</h3> <p>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리극)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무크 광주세정점</h3> <p>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뻐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p>	<h3>법무사 황영수 사무소</h3> <p>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p>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도명 명리심리연구소</h3> <p>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평생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송가네 반찬</h3> <p>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p>	<h3>다흥치마 한정식 전문</h3>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p>	<h3>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h3>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음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p>	<h1>光州日報</h1>